

PLS 적용에 따른 부산지역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 평가

I | 연구목적 및 필요성

- PLS(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)는 국내에 사용이 등록된 농약 및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19. 1. 1.부터 전면 시행
- 이에 따라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 별도로 기준이 없는 경우는 0.01mg/kg로 일률 적용하게 되어, 그간 미등록된 농약 및 유사기준 등을 적용하던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PLS 적용 전·후의 농약잔류 실태를 분석해 보고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을 평가

II | 주요 연구내용

- 연구기간 : 2019.1 ~ 2019.11
- 연구대상 : 부산지역 유통 농산물
- 연구방법 : 식품공전의 7.1.2.2 다중농약 다성분 분석법

III | 연구결과

- 부산지역 유통 채소류와 과일류 2,853건을 대상으로 동시분석이 가능한 138항목의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, 잔류농약 검출건수는 230건으로 29종의 농약이 검출되었고,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20건이었음
- PLS 적용 전의 잔류농약 검출건수는 219건, 부적합 농산물은 11건이었으나 PLS 적용 후의 잔류농약 검출건수는 230건, 부적합 농산물은 20건으로 증가
- 기준초과 된 농약과 그 검출량을 토대로 농약이 사람에게 미치는 위해도를 평가한 결과 ADI 대비 최저 0.0013%에서 최고 0.3913%로 위해가능성은 낮음

IV | 정책연계방안

- 식품안전관리지침 등의 안전한 먹거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

V | 활용계획

- PLS 시행에 따른 농산물의 잔류농약 실태 변화 파악
- PLS 시행과 관련 하여 농약안전사용지침 준수 등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홍보자료 제공